

(韓国／朝鮮語)

현민 여러분께

오늘 정부 대책 본부는, 오늘부터 5 월 6 일까지 시마네현을 포함한 전국 47 개 도도부현을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'긴급사태 선언'의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.

더 이상 전국적인 감염 확대를 막는다는 정부의 강한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.

시마네현으로서는 특별조치법 및 정부 방침에 따라 시마네현의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.

현민 여러분께는 첫 번째로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, 함부로 자택 등에서 외출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.

두 번째로, 대형 연휴 기간에는 도도부현을 넘는 불요불급한 이동을 자숙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여기에서 첫 번째 외출 자제 대상이 되지 않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의 구체적인 예로는, 의료기관 통원, 식량·의료품·생필품 구매, 필요한 직장에 출근, 야외에서 운동이나 산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.

또한, 현시점에서는 아이의 등교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외출로 인정되지 않기에 아동·학생 여러분에게는 등교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.

이에, 현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이 혼란하지 않게 실정에 맞추어 가능한 한 신속히 휴업할 것을 요청하여, 주초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모든 현립 학교(고등학교·특별지원학교)가 휴업할 예정입니다.

또, 모든 국립·공립·사립 유치원·소·중학교·고등학교의 경영 관계자에 대해서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드립니다.

동시에, 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 대책과 의료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현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.

2020년 4월 16일

시마네현지사 마루야마 다쓰야